

# 아세안연구원 ISSUE PAPER

## 아세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박사명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요 약

21세기 미국과 중국 사이 '신냉전'의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과 아세안은 그 군사적 충돌을 견제하고 평화적 협력을 견인하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한다. 중국 중심적 중화질서(1368-1840), 서구중심적 식민질서(1841-1940), 일본중심적 대화(大和)질서(1941-1945), 미소중심적 냉전질서(1946-1990) 등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질서는 강대국 중심적 위계구조를 공유하며, 한반도와 동남아는 그 주변적 위상을 공유한다. 동북아에서 동남아까지 동아시아 전역이 공산진영과 반공진영으로 분단되는 냉전질서의 경우, 한반도와 동남아는 유럽의 '차가운 평화'와 대조되는 '뜨거운 전쟁'에 휩쓸린다. 그 열전의 현장이 한국전쟁(1950-53)의 동북아에서 베트남전쟁(1955-75)의 동남아로 이동함에 따라 1967년 출현하는 아세안의 한국에 대한 위상도 '전장'으로 정위된다. 그러나 1989년 미소냉전의 종식 이후 가속되는 세계화와 지역화에 따라 동북아와 동남아의 연계가 강화되고,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위상은 '전장'에서 '시장'으로 재편된다. 한국무역의 중심적 시장도 1990년 미국(25.6%)·일본(22.0%)에서 2020년 중국(24.6%)·아세안(14.7%)으로 교체된다. 그와 같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시장'을 바탕으로 2015년 출범하는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는 동아시아의 공동가치와 공동이익에 관한 공론의 형성을 주도하는 '광장'으로 부상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세력이 지지하는 '아세안 중심성'은 그 규범적 기초이다.

# 아세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박사명  
(강원대학교 명예교수)

## 목 차

I. 서론	1
II. 냉전(1946-1990)과 전장	2
III. 탈냉전(1991-2015)과 시장	4
IV. 신냉전(2016-?)과 광장	6
V. 결론	8
참고문헌	9

## I. 서론

21세기에도 미국의 세기가 지속되기를 갈망하는 '미국몽'과 21세기에는 중국의 세기가 개막되기를 열망하는 '중국몽'이 끊임없이 엇갈리는 '백년의 마라톤'이 진행되고 있다(劉明福 2010; Pillsbury 2016).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그 동상이몽의 교차로에 위치한다. 전략적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긴밀한 연대는 21세기의 역사적 요청이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위상과 역할을 조망하는 과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아시아에 대한 아세안의 지정학적(geopolitical), 지경학적(geo-economic), 지문화적(geocultural) 위상이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공간적 위상은 전장에서 시장으로 전환되고, 다시 그 시장에서 광장이 부상하고 있다. 그와 같은 공간적 위상의 변화는 시간적 조건의 변화와 조응한다(표 1). 냉전(1946-1990)의 포화는 전장의 확대를 초래하고, 탈냉전(1991-2015)의 평화는 시장의 확대를 촉진하며, 신냉전(2016-?)의 비화는 광장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다(박사명 2006).

[표 1]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위상

시간	공간	지역구조	전략문화	상호관계
냉 전(1946-1990)	전장	분단	홉스(Hobbes)문화	적대(enemy)
탈냉전(1991-2015)	시장	연계	로크(Locke)문화	경쟁(rival)
신냉전(2016-?)	광장	통합	칸트(Kant)문화	연대(friend)

자료: Wendt 1999.

동북아에서 동남아까지 광역적 동아시아를 전장에서 시장으로, 시장에서 광장으로 전환하는 21세기의 역사적 여정은 2015년 출범하는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에서 개시된다. 이제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은 지역적 회합을 주선하는 절차적 차원을 넘어 지역적 통합을 주도하는 실질적 차원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이외에는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아세안의 기적'(Mahbubani 2017)은 동아시아의 교두보를 통해 '아시아의 기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II. 냉전(1946-1990)과 전장

극우전체주의(독일·이탈리·일본)에 대응하는 미국과 소련(극좌전체주의)의 전략적 연합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라 급속하게 해체된다. 1946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양대진영의 정치군사적·경제사회적·문화이념적 대결이 고조되는 냉전이 개시된다. 제국주의의 확장이 초래한 식민국가가 민족주의의 확산에 따라 국민국가로 재편되는 새로운 국가형성 과정에서 적대적 흡수문화가 풍미한다. 20세기 후반의 50년에 가까운 동아시아의 "전쟁과 혁명의 시대"가 전개된다(鄧小平 1993).

'오랜 평화'(Gaddis 1986)가 지배하는 서구사회와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의 냉전은 열전으로 점철된다. 중국혁명(1946-1949)은 한국전쟁(1950-53), 베트남전쟁(1955-75), 중국-베트남전쟁(1979), 캄보디아전쟁(1976-90)으로 이어진다(표 2). 결국 동아시아 전역이 공산진영(중국·북한·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과 반공진영(일본·한국·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으로 분단된다. 중립적 대안을 추구하는 1955년 반둥(Bandung)회의와 1961년 비동맹(Non-Alignment)운동은 좌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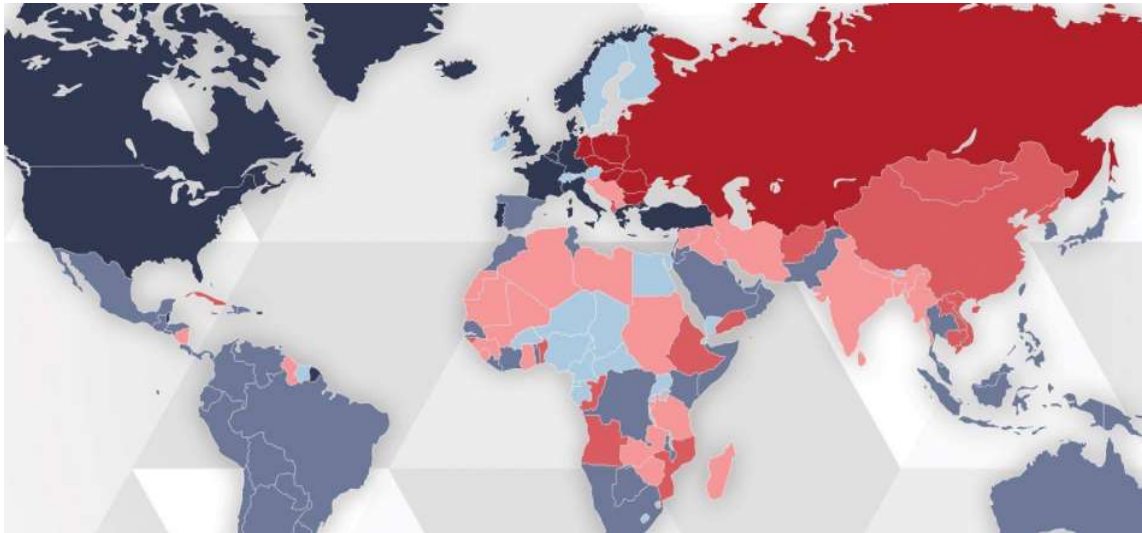
[표 2] 동아시아의 전장

권역	국가	한국[朝鮮]전쟁(1950-53)	베트남[印支]전쟁(1955-75)	1968
공산진영	소련	전투기 150대 조종사	군사요원 15천	3천
	중국	297만	32만	17만
	북한	20만(1950) 26만(1953)	조종사 200 포병 2연대	6백
	베트남(북)	-	29만(1968) 10만 (베트콩)	39만
	라오스	-	파테트라오(Pathet Lao)	-
	캄보디아	-	크메르루즈(Khmer Rouge)	-
반공진영	미국	179만(전사 38천)	259aks(전사 59천)	54만
	한국	10만(1950) 59만(1953)	32만(35만)	5만2
	베트남(남)	-	85만(1968)	85만
	일본	소해정 53척 해군 12백	상륙정 28척 해군 14백	-
	대만	(병력 33천 수송기 20)	수송기 조종사 기술자	-
	태국	63백(13천)	3만(전투부대)	1만
	필리핀	74백	1만(지원부대)	1천

자료: 박사명 2013, 169.

지역적으로, 동아시아의 분단(그림 1)을 가속하는 냉전은 1972년 미국-중국화해, 1978년 중국개혁개방, 1979년 중국-베트남전쟁, 1986년 베트남혁신(Doi Muoi)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세계적으로, 냉전은 1985년 소련개혁개방(Perestroika), 1989년 유럽냉전종식, 1990년 독일통일, 1991년 소련해체 등에 따라 전격적으로 종식된다. 그와 같은 역동적 정치변동에 따라 동남아 반공진영의 지역연합 아세안은 일본(1977)을 잇는 공식적 대화상대로서 한국(1989), 인도(1992), 중국(1996)을 수용한다.

[그림 1] 동아시아의 지역분단: 1980



출처: <https://www.facebook.com/MilitaryData/photos/cold-war-alliances-in-1980-source-httpsbitly2o7r6aq/1941060089370795>

1954년 제네바(Geneva)회의에서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협상이 완강하게 교착되는 반면, 베트남의 통일문제는 이견이 줄속하게 봉합된다. 그러나 그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바로 베트남전쟁으로 표출된다. 한반도의 정전은 베트남의 개전으로 승계되고, 동북아의 군사적 전쟁은 동남아의 외교적 경쟁으로 전환된다(표 3). 반공진영은 1972년 미중화해 이후 북한을 승인하고, 공산진영은 1990년 냉전종식 이후 한국을 승인한다. 그러나 소련과 중국은 한국을 승인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북한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표 3] 남북한의 외교경쟁

진영	국가	한국	북한
공산진영	소련	1990	1978
	중국	1992	1949
	베트남	1956-75(남)/1992	1950
	라오스	1974-75/1995	1974
	캄보디아	1970-75/1997	1964-70/1975
반공진영	미국	1948	-
	일본	1965	-
	필리핀	1949	2000
	태국	1958	1975
	말레이시아	1960	1973
	인도네시아	1973	1964
	싱가포르	1975	1975
	브루나이	1984	1999
중립국가	미얀마	1975	1975-83/2007
국제연합	UN	1992	1992

### Ⅲ. 탈냉전(1991-2015)과 시장

냉전종식 이후 세계화와 지역화의 가속적 진전에 따라 민족해방의 폐쇄적 민족주의가 경제발전의 개방적 민족주의로 전환된다. 주권원칙에 기초하는 시장경쟁이 가열되고 경쟁적 로크문화가 확산한다. 새로운 “평화와 발전의 시대”가 도래하고(鄧小平 1993), 동아시아 전역은 전장에서 시장으로 개편된다.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에 따라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동북아와 동남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밀려난다. 시장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공간적으로 확장되고 제도적으로 심화된다(Mahbubani 2017, 68-74).

인도차이나를 “전장에서 시장으로” 재편하자는 1988년 태국총리(Chatichai Choonhavan)의 호소(Yong 1988), 1989년 베트남의 철군, 1990년 캄보디아의 종전에 따라 시장경제가 동남아 전역으로 확장된다. 아세안은 1995년 베트남, 1997년 라오스와 미얀마, 1999년 캄보디아 등 동남아 전역을 포괄하게 된다. ‘아시아의 발칸(Balkan)’(Mahbubani 2017, 5)을 탈피하기 위한 동남아의 도전에 따라 냉전시대 ‘자연상태’의 적대적 흡수문화는 점차 주권국가 원칙에 기초하는 아세안의 경쟁적 로크문화로 변동한다.

아세안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1989년 부문대화관계, 1991년 전면대화상대, 2004년 포괄협력동반, 2010년 전략동반관계, 2012년 상주대사파견 등 단계적으로 제고된다. 한국에 대한 아세안의 위상은 냉전시대와 같은 군사적 적대의 대상에서 경제적 경쟁의 대상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그에 따라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무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표4). 한국무역의 중심적 시장은 탈냉전 초기 미국과 일본에서 최근 중국과 아세안으로 교체된다. 상품과 자본의 이동은 인간과 문화의 이동을 수반한다.

**[표 4] 한국무역의 지역분포(%): 1990-2020**

국가	1990	2000	2005	2010	2020
미국	25.6	20.2	13.3	10.2	13.4
일본	22.0	15.7	13.3	10.4	7.3
EU28	12.9	12.4	13.2	10.4	11.4
중국	0.0	9.4	18.4	21.1	24.6
아세안	7.2	11.5	9.8	10.9	14.7
중동	5.9	10.0	11.0	11.9	6.1
인도	0.5	0.7	1.2	1.9	1.7
러시아	0.1	0.9	1.4	2.0	1.8
합계	74.2	80.8	81.6	78.8	81.0

비고: 아세안(12.4%)이 처음으로 중동(10.4%)을 추월하는 것은 2015년이다.  
 자료: 관세청. 2021. 수출입무역통계; ADB. 2021. Integration Indicators.

그러나 한국에 대한 동남아 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에 대한 한국의 위상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 정체한다. 무역과 투자에서 한국은 아세안, 중국, 미국, EU, 일본 등에 크게 밀려난다(표 5). 전체무역에 대한 역내무역의 비율이 60%를 크게 상회하는 EU에는 미달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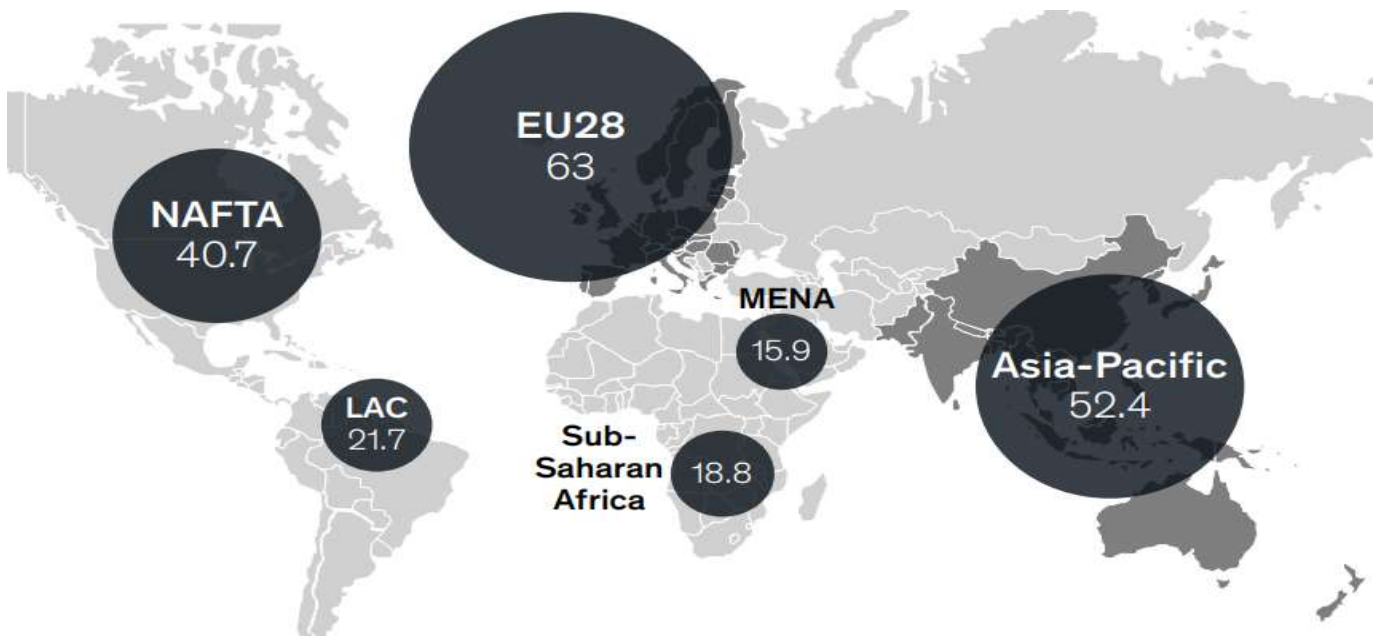
중근동, 아프리카, 중남미, 북미권을 크게 증가하는 아태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아시아는 50%를 상회한다(그림 2).

[표 5] 동남아의 무역투자 분포(%): 2020

순위	대상	수출	대상	수입	대상	투자
1	아세안	21.3	중국	23.5	미국	25.5
2	중국	15.7	아세안	21.2	아세안	16.6
3	미국	15.2	일본	7.8	홍콩	8.5
4	EU	9.4	미국	7.7	EU	7.3
5	일본	7.2	한국	7.7	일본	6.2
6	홍콩	6.9	EU	7.6	중국	5.6
7	한국	4.3	대만	6.7	한국	5.0
합계		80.0		82.2		74.7

자료: ASEAN 2021,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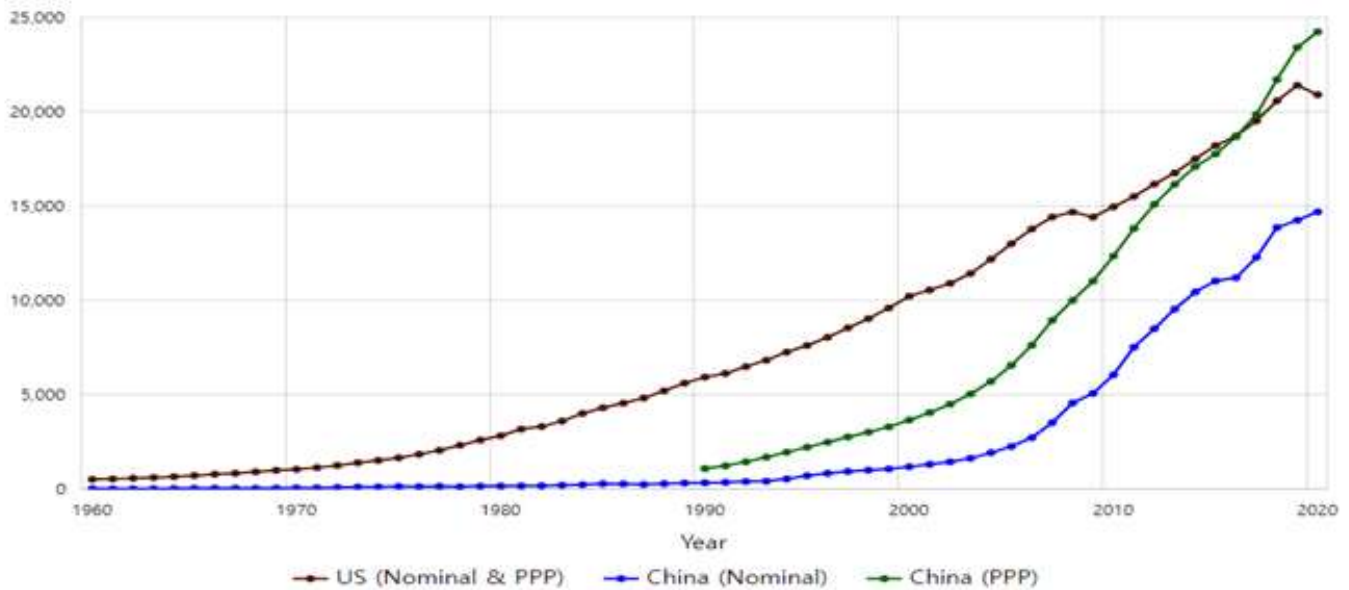
[그림 2] 세계각지의 역내무역(%): 2019



출처: <https://www.mckinsey.com/~media/mckinsey/featured%20insights/asia%20pacific/asias%20future%20is%20now/asias-future-is-now-final.pdf>

그와 같은 동아시아의 역동성에서 각별하게 부각되는 현상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격차가 가속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인구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사례이다. 2010년 일본을 추월하여 GDP 기준 제2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2012년 미국을 추월하여 제1무역대국으로 등장하며, 2014년 미국을 추월하여 GDP/PPP 기준 제1경제대국에 도달한다(그림 3). 그에 따라 GDP 기준 제1경제대국을 향한 일정을 2050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하는 시각도 제시된다.

[그림 3] 미중 GDP 성장: 1960-2020 (단위: 10억 US\$)



출처: <https://statisticstimes.com/economy/united-states-vs-china-economy.php>

#### IV. 신냉전(2016-?)과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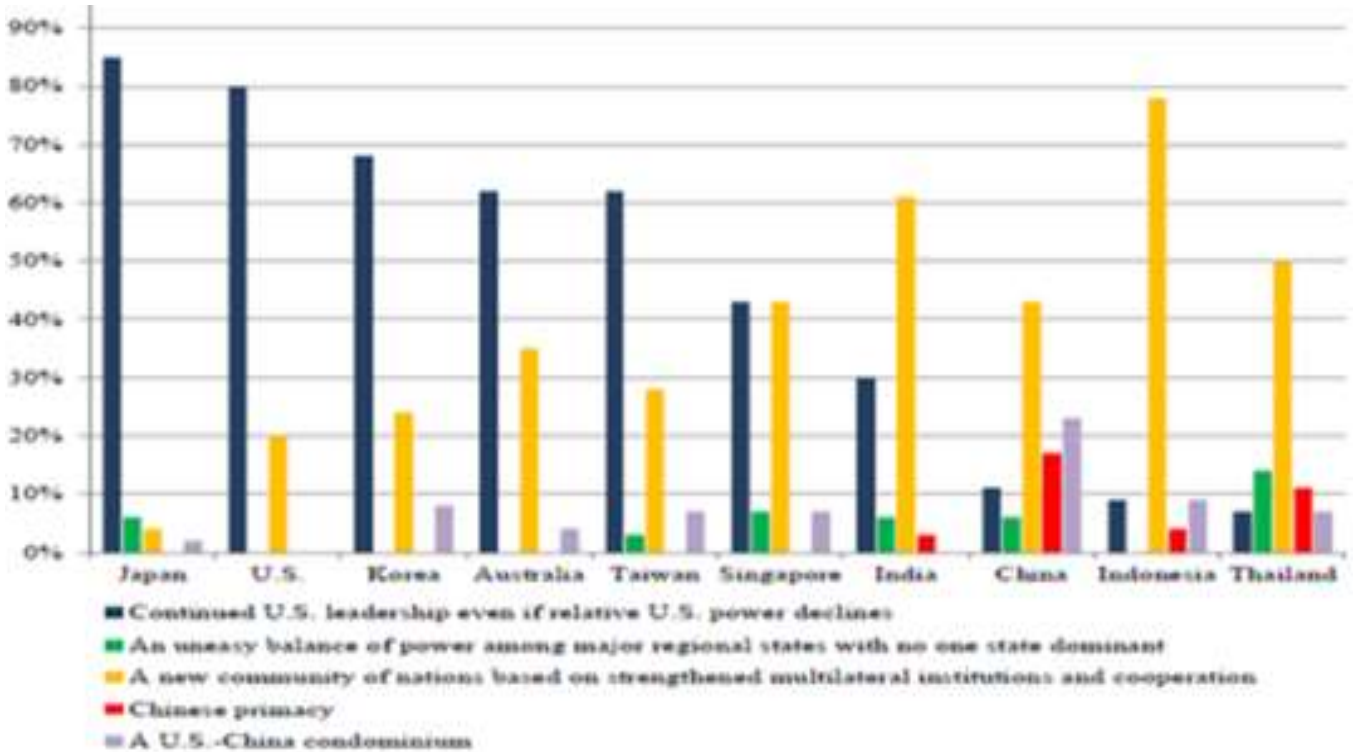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성장을 지속하는 반면, 미국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침을 거듭한다. 중국은 2013년 '일대일로(BRI)'로 공세를 강화하고, 미국은 2017년 '인도태평양(FOIP)'으로 역습을 도모한다. 싱가포르 전 UN대사(Kishore Mahbubani)를 빌면, "중국 주변의 모든 국가는 미국이 수백년 더 아시아에 머물 것임을 안다. 그들은 중국은 수천년 더 머물 것임도 안다. 모든 아세안 국가의 분명한 선호는 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들은 양자택일을 바라지 않는다."(Acharya 2021, 94)

한국과 아세안은 이해가 일치한다. 신냉전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가장 긴요한 연대의 대상이다. 중국의 가속적 경제성장과 공세적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의 선제적 대응전략이 강화됨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은 객관적으로 탈냉전의 안정과 평화를 교란하는 신냉전의 새로운 역사적 국면을 예감한다. 그러나 주체적으로 동아시아는 1997년 파국적 경제위기, 2001년 동아시아공동체 구상, 2003년 아세안공동체 구상,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 등을 통해 아세안 중심적 지역질서의 각종 구상을 제기한다.

평화·번영·진보의 공동체형 지역질서를 향한 광장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신냉전의 암운이 동아시아를 짓누른다(EAVG 2001). 신냉전은 이미 진행중이라는 현실주의적 비관론(Mearsheimer 2021)과 그것은 아직 잠행중일 뿐이라는 자유주의적 낙관론(Nye 2020)이 대립한다. 전장의 역사성과 시장의 역동성에 기초하는 광장은 '지역적 공공영역'에 관한 EU의 성찰을 반영한다(Habermas 2001). 아세안공동체는 그 단초이고 '아세안 중심성'은 그 동력이다. 광장은 적대와 경쟁을 넘어 연대를 지향하는 칸트문화의 무대이다.

동아시아의 미래질서에 대한 전망에서 동북아와 동남아는 중요한 편차를 드러낸다. 각국의 전문가적 시각에 의하면, 강대국 패권정치의 경험이 풍부한 동북아는 현실주의적 경향이 뚜렷하고, 아세안 규범정치의 경험이 축적된 동남아는 자유주의적 경향이 뚜렷하다(그림 4). 일본, 한국, 대만은 미국주도적 질서를 선호한다. 그러나 중국은 다자주의적 질서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주도적 질서나 미중주도적 질서에도 기대한다.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은 다자주의적 제도에 기초하는 공동체형 질서를 지지한다.

[그림 4] 동아시아의 미래질서(%): 2014



자료: Green and Szecheny 201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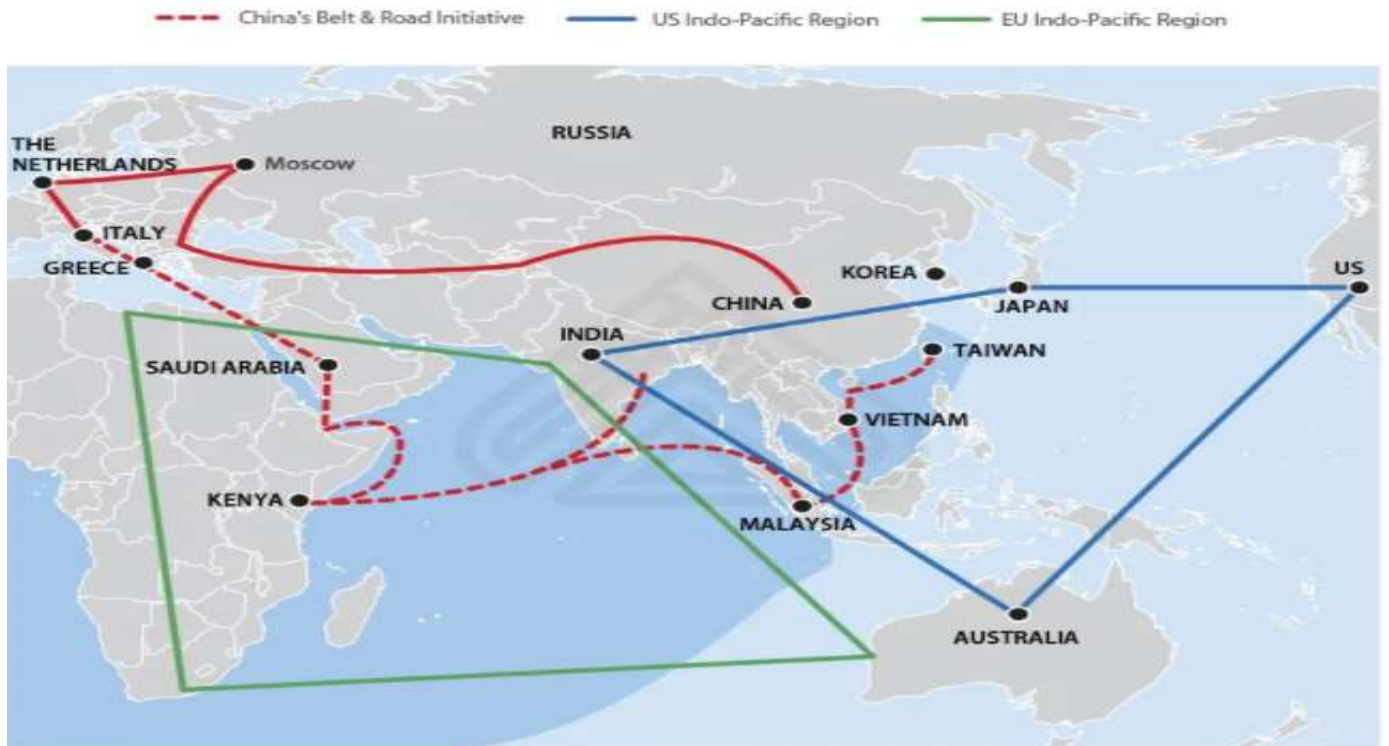
지속적 평화, 번영, 진보를 위해서는 현실주의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을 합리적으로 절충하는 실용주의적 대안이 요구된다. 과거질서의 '강대국 중심성'과 미래질서의 '중소국 중심성'을 모두 고려하면, 강대국과 중소국의 가치와 이익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복합적·중층적 제도가 요망된다. 전자는 실효성·적실성에 기여하고, 후자는 민주성·정당성에 기여한다. 이상과 현실의 조화에 실패하는 고대의 '공동평화(common peace)'와 현대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은 미래질서를 위한 역사의 교훈이다.

미중갈등은 20세기 '아시아의 드라마'를 압도하는 21세기 '아시아의 딜레마'를 예고한다. 새로운 지역질서를 위한 한국의 역할도 한계가 심각하다. 아세안 지도계층의 시각에서 미중갈등에 대한 한국의 조정능력은 일본(39.3%)과 EU(40.8%)에 비해 3.2%에 불과하며, 규범에 기초하는 지역질서에 대한 한국의 지도능력도 EU(32.4%), 미국(28.6%), 아세안(16.9%), 일본(10.5%)에 비해 0.4%에 불과하다(ISEAS 2021, 25, 34). 새로운 지역질서를 위해 미중충돌을 견제하고 미중협력을 견인하는 과제가 너무 막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대안은 '일대일로(BRI)'와 '인도태평양(FOIP)'의 상호갈등 아닌 상호협력이다. 최근 아세안을 통한 상호협력의 가능성이 시사되기도 한다(ASEAN 2019; 習近平 2021). 대미안보협력과 대중경제협력 사이에서 다양한 편차가 드러나는 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내부의 균열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균열도 건설적 활용이 가능하다(그림 5),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의 상호의존이 상호갈등을 넘어서는 경우 미중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신냉전'의 출구에 도달할 것이다.

그림 5: 인도태평양의 합종연횡



자료: Wheeler 2020.

## V. 결론

아세안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은 냉전의 포화가 거세면 적대의 전장이고, 탈냉전의 평화가 넘치면 경쟁의 시장이며, 신냉전의 위협이 커지면 연대의 광장이다. 아세안은 동남아를 넘어 동아시아와 아시아의 평화, 번영, 진보를 향한 전략적 교두보이다. 그것이 약한 만큼 우리의 기원은 깊어지고, 그것이 강한 만큼 우리의 기대는 높아진다. 그러므로 '아세안 중심성'은 의식적·절차적 차원에서 실질적·실천적 차원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역사적 지역질서는 모두 '강대국 중심성'의 일방주의적 패권질서이다. 새로운 지역질서는 자율성, 형평성, 포용성을 구비한 다자주의적 지역질서로서 '아세안 중심성'에 기초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내생적 지역질서로서 중국중심적 중화(中和)질서의 상대적 성공과 일본중심적 대화(大和)질서의 절대적 실패가 날카롭게 대조된다. 지속가능한 미래의 공화(共和)질서는 내인과 외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개방적 지역질서이다.

## 참고문헌

- 박사명. 2006.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서울: 이매진.
- \_\_\_\_\_. 2013. "한국전쟁과 동남아시아." 『아시아저널』, 7: 161-80.
- 鄧小平. 1993. "和平和發展是當代世界的兩大問題." 『鄧小平文選』 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 刘明福. 2010. 『中国梦: 後美國時代的大國思惟與戰略定位』. 北京: 中国友谊出版公司.
- 習近平. 2021. "命運與共 共建家園." 在中國-東盟建立對話關係30周年紀念峰會上的講話. 11月22日.
- Acharya, Amitav. 2021. *ASEAN and Regional Order: Revisiting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New York: Routledge.
- ASEAN Secretariat. 2019. "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 \_\_\_\_\_. 2021. *ASEAN Statistical Yearbook 2021*.
- EAVG(East Asia Vision Group). 2001. "Towards an East Asian Community: Region of Peace, Prosperity and Progress."
- Green, Michael J. and Nicholas Szechenyi. eds. 2014. *Power and Order in Asia*. Lanham: Rowman & Littlefield.
- Habermas, Jürgen. 2001. "A Constitution for Europe?" *New Left Review*, 11: 5-26.
- Gaddis, John L. 1986. "The Long Peace: Elements of Stability in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International Security*, 10(4): 99-142.
- Green, Michael J. and Nicholas Szechenyi. eds. 2014. *Power and Order in Asia*. Lanham: Rowman & Littlefield.
- ISEAS(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21. *The State of Southeast Asia: 2021 Survey Report*. Singapore: ISEAS.
- Mahbubani, Kishore and Jeffrey Sng. 2017. *The ASEAN Miracle: A Catalyst for Peace*. Singapore: NUS Press.
- Mearsheimer, John J. 2021.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100(6): 48-58.
- Nye Jr., Joseph S. 2020. "Power and Interdependence with China." *Washington Quarterly*, 43(1): 7-21.
- Pillsbury, Michael. 2016. *The Hundred-Year Marathon: 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 as the Global Superpower*. New York: Henry Holt.
- Wendt, Alexander. 1999. *Soci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heeler, Andre. 2020. "Has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Shifted the Geo-Political Regional Debate from APEC to the Indo-Pacific?" *Silk Road Briefing*, November 4.
- Yong, Molly. 1988. "Thailand Seeks to Turn Indochina Battlefields into Marketplaces." AP News, November 27.

## 필자소개

박사명 교수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동남아학회 회장, 한국동남아연구소 이사장, 외교부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민간자문단의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사명 교수는 동남아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정치변동 및 지역통합을 중심으로 많은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으며 주요 논저로는 '동남아의 경제위기와 정치적 대응', '동아시아의 새로운 모색', '동아시아공동체와 한국의 미래', '동북아를 넘어 동아시아로' 등이 있다.



# 아세안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ASEAN Studies

## 연구원 소개

<아세안연구원>은 1997년 아시아지역연구소로 출범하였으며, 이후 동남아시아연구소(2007~2021), 동남아시아원(2010~2019)이란 연구소명으로 활동하다가 아세안공동체의 출범과 한-아세안 관계 심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019년에 현재의 연구소명을 변경하였다. <아세안연구원>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총체적 단위로서의 동남아시아의 인식과 구성」이라는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 해외지역연구에 선정되어 총 10년간(2009.09~2019.08)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했다. 현재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전략적지역연구형)에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아세안 소지역(subregion) 연계를 통한 신남방정책 고도화 전략 연구」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대국 간의 경쟁 심화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아세안을 향한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아세안연구원>은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년에 두 번 국제영문학술지(SUANNABHUMI)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과정(동남아시아학 석사 및 박사)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중확산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발행일자

2022년 3월 2일

## 발행처

부산외국어대학교 아세안연구원

주소: (46234)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485번길 65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센터 A504호

이메일: [iseas2@bufs.ac.kr](mailto:iseas2@bufs.ac.kr), [kiasbufs1990@gmail.com](mailto:kiasbufs1990@gmail.com)

홈페이지: <https://iseas.bufs.ac.kr/>

전화: 051-509-5670(+82-51-509-5670)

팩스: 051-509-6649(+82-51-509-6649)

본 이슈페이퍼는 부산외대 아세안연구원이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NRF-2021S1A5C2A01087076) 지원을 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연구원 이슈페이퍼를 이메일로 받아보실 분들은 아세안연구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